2008년 4월 1일(화)
제144호

사천시보

발 행 처 : 사천시 발 행 인 : 사천시장
(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http://www.sacheon.go.kr 전화 : (055)831-2215 · FAX : (055)831-6011 E-Mail : gongbo@e4000.net 〔1996년 1월 25일 창간〕

고향의 그리움 한그루의 나무에 담아

제63회 식목일 도단위행사를 사천초전공원에서 재일·재경도민과 함께

사천시는 제6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재일·재경(경상남도)향우들의 향토 기념식수 행사를 사천초전공원에서 갖기로 했다.

올해 서른세 번째로 열리는 재일·재경향우들의 기념식수행사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남면 초전리와 방지리 일원의 사천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는 생활공원이며 휴식공간인 사천초전공원에서 열릴 계획으로 연면적 15만5,138㎡의 부지에 수변무대, 수상데크, 인공폭포 등 30여종의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40여억이 투입된 사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오는 4월 5일 일본에 거주하는 경상남도 출신 교민400여명과 재경도민회 및 사천향우회 100여명을 비롯해 도지사, 시장, 도내 기관 단체장, 산림관련 단체 및 사천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하는 식목일 행사로 도민을 대표하여 지사 및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공원내 1만5,000㎡ 부지에 가시나무, 은목서 등 9종 1만4,375본의 묘목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식수하게 된다.

특히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삼천포12차 농악을 무형문화재 박염 선생의 지도로 남양중학교 농악대가 식전 12마당을 공연하게 함으로써 향후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식수 행사 후에는 공원 수변에 설치된 전통 정자 등 산책로와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탐방은 물론 우리지역 관광지와 사천 일반산업단지를 둘러 볼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행사기간에 개최되는 와룡문화제와 더불어 전시민이 참여하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고향을 떠난 교포와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좋은 인상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발전하는 우리지역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5일 재일, 재경도민회 향우들과 함께 향토 기념식수 할 예정인 사남면 초전에 위치한 사천초전공원 전경.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 선별장 준공식

사천풋마늘 선별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수영 사천시장이 선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3월18일 사천풋마늘 명품화를 위한 작목 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선별장 131㎡, 예냉시설 16.5㎡, 세척시설 1개소, 마늘선별기 2대, 분리기 2대, 자동결속기 1대, 포장지 2만7,000매 등을 지원하는 풋마늘 선별장 준공식을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농업관계자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미룡마을 선별장에서 가졌다

'마늘을 뿌리째 먹는다.'사천 풋마늘의 특징은 뿌리째 먹는데 있다. 뿌리가 유난히 희고 길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냉이나 달래와 더불어 독특한 향과 맛으로 전국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 면적은 2008년 현재 45ha, 400농가가 재배해 1,600톤을 생산, 2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작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웰빙식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뿌리를 세척하여 포장 유통함으로써 사천풋마늘의 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천시 효녀 작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오는 4월 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관내 45개 투표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의 투표가 실시된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후보자들의 금품, 음식물 제공, 선물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유권자 스스로도 높은 시민의식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난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이 19세(1989. 4. 10 이전출생자)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젊은층의 선거 참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깨끗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천시와 사천선관위에서는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투표참여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며, 사천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나 제보(☎1588-3939)를 받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 향응 선심관광 제공행위와 요구행위 등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 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부재자 신고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구 사천청사 1층, 곤양면사무소, 동서금동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고, 거소투표자는 거소(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송부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붓 뚜껑이나 볼펜 등으로 1인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 투표용지에 '○'기표 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되 회송용 봉투에는 주소, 성명 등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사천시는 "선거당일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을 알고 가면 보다 빨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사천시 총무과 ☎831-2565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852-5481

제13회 와룡문화제 행사 종목 및 일정

날 짜	종 목	행 사 명	시 간	장 소
4.3(목)	전시행사	한국서예협회사천지부전	10:00~18:0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경연대회	학생서예공모전	10:00~18:0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열림행사	서제	11:00~11:50	성황당 산성
		거리 路 한마당	17:00~18:00	훼밀리마트~삼천포공설운동장
		열림한마당	19:00~21:50	선진리성 주차장 특설무대
		불꽃놀이	19:54~20:00	해안도로(SPP진입삼거리)
4.4(금)	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09:00~17:00	사천문화원 대강당
		학생미술실기대회	09:00~13:00	선진리성 일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9:30~17:00	문화예술회관
		백일장	10:00~12:00	선진리성
	공연행사	국악한마당큰잔치	14:00~15:30	선진리성 상설무대
		문학의 밤-시야 벚꽃과 놀자	19:00~21:00	용남고등학교 강당
		경축음악회	19:30~21: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5(토)	기획체험 행 사	조명군총탐방 및 갯벌체험	10:00~18:00	선진리성, 사천만
		별나라 여행	14:00~22:00	선진리성 주차장
		전통혼례재현	15:00~17:00	선진리성
	문화재 시연	가산오광대시연	11:00~12:00	선진리성 상설무대
		마도갈방아소리시연	13:00~14:00	선진리성 상설무대
		진주삼천포농악시연	14:00~15:00	선진리성
	경연대회	전국판소리,수궁가경창대회	09:30~18: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국남여웅변대회	10:00~14: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실버장기자랑대회	15:00~17:00	선진리성 상설무대
		이야기대회	15:00~18: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공연행사	자유새, 여섯줄낚두리공연	19:00~20:40	선진리성 상설무대
4.6(일)	부대행사	전국연날리기대회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경연대회	학생바둑대회	09:00~17:00	삼천포체육관
		시민노래자랑	19:30~21:30	선진리성 상설무대

날 짜	종 목	행 사 명	시 간	장 소
4.6(일)	공연행사	무용공연	19:30~21: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4(금) ~4.6(일)	전시행사	정신장애인 재활작품전	10:00~18:00	선진리성
		합동사진전	10:00~18:00	선진리성
		사천미술협회 작품전	10:00~18:0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생활속의 도예전	10:00~18:00	선진리성
		분재전	10:00~18:00	시청사 광장
		수석전	10:00~18:00	삼천포농협 3층 회의실
	부대행사	사회적기업 지역홍보관	10:00~18:00	선진리성
		나눔식당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건강증진관 운영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전국연날리기대회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칵테일 시음회	10:00~18:00	선진리성
	기획체험 행 사	도자기만들기 체험	10:00~18:00	선진리성
		민속놀이	10:00~18:00	선진리성
		문화재 체험	10:00~18:00	선진리성
		비누방울 매직버블	10:00~18:00	선진리성
		민속 포토존	10:00~18:00	선진리성
		어린이벼룩장터	10:00~18:00	선진리성 주차장
		민속연 만들기	10:00~18:00	선진리성
		점핑클레이어	10:00~18:00	선진리성
		짚풀공예	10:00~18:00	선진리성
		대나무피리만들기	10:00~18:00	선진리성
		문패만들기	10:00~18:00	선진리성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한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사천시는 조직 개편등으로 신설된 부서의 헌장을 제정하고 부서별로 운영중인 13개분야 헌장을 1개의 공통기준과 15개 분야별 이행기준으로 개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3월 12일 공포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 제공방법 및 절차 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의 결정 과정부터 고객의 견을 반영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거나 고쳐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불편을 끼쳤을 경우 시에서 정한 시정·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게 제·개정함으로써 시민 곁으로 한발 다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사천시 공무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 시민과 함께 번영하는 사천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시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3.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4. 시정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5.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는 즉각 시정 통보하고 이에 맞는 보상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료 건축상담소 운영

사천시는 시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학습동아리 (건축과 동아리명 : 풀무질)의 일환으로서 사천시 건축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와 혁신적인 고객만족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내 '무료건축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내용으로는 건축신고나 허가와 관련한 건축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사천시 건축사회 소속건축사 14명이 윤번제로 참여하는데 만약, 민원인이 건축법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담도 가능하며, 화요일과 목요일 13:30분부터 17:00까지 매주 2회 운영한다.

그리고 '무료건축상담소' 운영을 해본 후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천시 건축사회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 **패류독소란**

-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하여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임.

☞ 매년 2~6월중 일부 연안해역의 패류 등에서 발생

- 봄철 수온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 수온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소멸.

☞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 : 80㎍/100g이하

-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검출시 안전수칙**

- 어업인께서는 행정기관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보건과 우리 수산물 신뢰확보에 최선의 노력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된 내용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4조)

- 낚시 등 행락객께서는 패류독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의 자연산 패류(홍합, 굴 등)를 채취하거나 먹지 맙시다.

☞ 마비성 패류독은 삭시톡신, 고니아톡신 등 여러 가지 독소성분의 복합체로서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께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철저히 확인 패류독 미 발생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공수의 '가축전염병 임상관찰'로 악성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앞장서

사천시는 6명의 공수의를 배치해 구제역, 소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찰 실시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천시 공수의들은 관내 예찰대상 농가 2,679호, 11만7,067두의 가축에 대해 지난 2월에는 임상관찰 1만4287두, 진료 1283두와 농장내 방역 상황 점검 및 질병 감염축 색출 등 악성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 브루셀라병 방역강화로 사육중인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하면서 3월부터 5월말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중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는 축산농가가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도록 홍보 독려와 아울러 농장내 방역상황 점검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사천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수요일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의심축 발견시는 시 농축산과 (831-3781, 1588-40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천시는 축산업 발전과 가축위생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장을 비롯한 6명을 지난 1월에 사천시 공수의로 위촉한 바 있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재경 서포 곤양향우들의 서경산악회 소개

산에 오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산 구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바위틈새를 겨우 붙잡고 기어 오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산 아래 경치는 땀에 흠뻑 젖는 상쾌함과 함께 산행하는 사람들을 잊지 못하게 하고 산으로 자주 부른다.

재경 서경산악회는 서울 경기일원에 사는 사천시 서포면과 곤양면출신 향우들이 주축이 되어 1995년에 설립된 향우산악회다. 현재 배영민 직전회장에서 지난 3월9일 경기도 양평 축령산에서 2008년도 시산제를 겸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이 된 김영두 향우를 비롯하여 송정수 산행대장 등 회원 수는 남녀 모두 70여명이 된다.

설립된지 13년째나 되다보니 지리산 한라산 태백산 소백산 대둔산 월출산 등 아름다운 한국의 명산은 거의 안가본 산이 없다. 그 동안 회원들의 산행실력도 대단해져 준 전문산악인들 수준이다.

지난 3월 9일 배영민 회장과 김영두 신임회장이 임무교대를 하고 있다.

근년에는 차량이 많아져 도로가 밀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충청도 경기도 일원의 산들을 주로 탄다. 전세버스로 달려가서 5시간 정도의 등산시간이 소요되는 산행코스를 잡는다.

서포의 이명산, 남해 금산, 사천의 와룡산 등 고향주변의 지역 명산들도 몇 차례 가보았다. 이렇듯 고향사람들끼리 세상살이와 고향이야기를 해가며 전국의 경치 좋은 산을 동행하다보니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산행이 된다. 서경산악회는 3월 시산제를 시작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하고 연회비(남 6만원, 여 4만원)을 받고 운영하며 출행당일 경비는 당일 참석회원이 지불해 충당하여 경비로 사용한다.

타향에 나와 고향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도 다지고 함께 산행하는 즐거움이 좋다며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산악회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지역 출신 이상의 장군 육군대장 승진 제3군사령관

사천시 출신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해 우리 지역 출신의 첫 4성 장군이 탄생했다. 건군 60주년 기념 사업단장 이상의 중장(57세, 육사30기)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별이 네 개인 대장이 됐다.

이 장군은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태생으로 용현초등학교, 진주중학, 진주고, 육군사관학교 30기를 졸업했다.

51년생으로 부인 황문향 씨와 자녀는 1남1녀가 있고 육군39사단장, 8군단장을 거쳐 최근까지 건군 60주년 기념사업단장에서 대장 진급과 동시에 제3군사령관에 임명됐다.

전국서 사천삼천포자랑 홍보마라톤 진행

권정기 향우, 서울 동아마라톤까지 풀코스만 51회째

2005년 제3회 43애향운동 공로상 수상자이고 43운동본부 전국홍보위원인 권정기 향우(을숙도마라톤클럽 전 회장)가 전국의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표찰을 달고 우리지역을 알리고 자랑하는 횟수가 지난 3월16일 서울 여의도 대회까지 합쳐 하프코스 30회, 풀코스 51회째 달하고 있다.

금년 나이 61세로 건강에 무리하지나 않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연이어 풀코스를 이어가고 있어 고향사랑 홍보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가 근자에 뛴 풀코스 대회를 살펴보면

▼ 2007.10.28 조선 춘천마라톤대회 ▼ 2007.11.4 창원통일마라톤대회 ▼2007.11.18 부산마라톤대회 ▼2007.11.25 고흥우주마라톤대회 ▼ 2008.1.6 여수엑스포국제마라톤대회 ▼2008.1.20 경남 고성전국마라톤대회 ▼2008.2.17 서울여의도 고구려역사지키기 마라톤 ▼ 2008.3.16 서울국제동아마라톤대회 풀코스까지 51회째 완주이다.

2008 민방위교육 실시 안내

우리시에서는 2008 민방위 기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교육기간:2008. 4월 14일 ~ 5월 중

2.교육장소:지정 장소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사무소 회의실 등)

일자	4.14 (월)	4.16 (수)	4.17 (목)	4.18 (금)	4.21 (월)	4.22 (화)	4.24 (목)
오전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종합사회 복지관	
오후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종합사회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정동면

일자	4.25 (금)	4.28 (월)	4.29 (화)	4.30 (수)	5.2 (금)	5.6 (화)	5.7 (수)
오전	정동면		종합사회 복지관		곤양면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오후	정동면	종합사회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축동면	곤양면	시청 교육장	시청 교육장

=>교육시간:오전 9시 ~ 13시, 오후 14시 ~ 18시 까지

3.교육대상:민방위대원 중 편성 1 ~ 4년차 대원

4.유의사항

○개인별로 교육훈련 통지서 사전 교부됨
(반드시 신분증 지참)

○교육참석 대상자는 교육개시 10분전까지 교육장에 입장

○질서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방위대원 준수 사항
- 대리참석, 지각·중도퇴장 엄금
- 교육 중 휴대폰 사용금지 및 신문, 잡지 등 반입금지

5.상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 재난안전관리과 (☎831-3325)로문의

자 연 재 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①정책보험
(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61~67.5%)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 상품(주택, 온실, 축사) 판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 재난안전관리과(831-3311), 전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달라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보장

2008. 4.20일부터 배치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주택법시행령제72조의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 설정의 변경 (주택법시행령제72조의3)

보증 설정을 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 설정을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며,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주택법시행령제72조의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 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사 등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2008.1.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12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안전검사(인증)를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해당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2항)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제3항)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부터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최고 8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

○법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2012.1.27)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천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의결내용으로는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처리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김유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탁석주·최갑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내용이다.

진주시 상락원 담당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현장 방문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에서는 우리시 화장장 건립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진주공설화장장과 상락원을 견학하고 현장견학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시설의 운영실태와 우리시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천시의회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확인 위주 의정활동과 연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5분 자유발언

【김유자 의원/제121회 임시회】

평소 마음속에 꺼림칙하게 여겨왔던 바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위문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빚어진 내용입니다.

전년도 명절과 지난 연말연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수급액 1억 9,076만 9,030원이었습니다. 기탁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잘 모르긴 합니다만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1년을 잘 지내게 된 것을 그리고 좋은 명절을 기쁨으로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마음의 표시로 어렵거나 불행하게 지내는 시민을 도우고저 하는 갸륵한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 좋은 계기로 인해 기탁된 성금, 성품이야말로 수급자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에 조금 혹은 많이 엇나가는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성품일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염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염려되는 바가 있는 것이 지난 연말에 쌀 20kg들이를 10kg씩 분배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쌀이 변질되어 그냥 전달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그들은 개인 경비를 들여서 오랜 시간 물에 불리어 가래떡을 만들어 전달한 바 있었답니다.

성·금품이 어디에서 누가 기탁을 했어도 귀중하게 보관 관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전달될 수 있어야지 싶어 말씀드립니다.

성금품을 전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거나 기록보존용으로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수급자로 하여금 민망하지 않게 주의하여 좋은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최 측에 대하여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으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줄 모르시는 지요'하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2,500수가 넘는 시를 쓰신 명성 높은 시인 다산의 시 한 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비는 나무에 둥지를 하지 않고 사람의 집 처마 서까래 아래 어디에 집을 지어 사람의 위력으로 다른 적이 침범할 수 없는 멋진 자기보호 수단이 있는 제비더러 다산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비가 처음 날아 올 때는 지지배배 쉬지 않고 떠들더라 떠드는 말의 뜻이야 알지 못해도 집이 없어 서럽다고 하소함 같더라. 느릅나무 홰나무 늙으면 구멍도 많은데 왜 거기서 살지 않느냐 여겼더니 제비는 다시 와서 또 지지배배 사람의 말에 대꾸하는 것 같더라.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 와서 쪼아 먹고 홰나무 구멍에는 뱀이 와서 더듬는다'고 다산이 1801년 신유옥사를 당해 경북 포항 곁에 있는 장기로 귀향가서 천애고아 같은 자기 신세를 서러운 심정에서 쓴 글이고 보니 박씨를 날라다가 흥부를 살맛나게 만들었던 제비는 전혀 마음에 없고 살집 없이 지지배배 우짖는 모습으로 보아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 보이는 주제가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과는 격이 다른 것을 몰라서도 아니라 믿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를 소홀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큰 것에도 소홀하거나 실족케 할 가능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본 나눔 사업은 해당 부서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자 돌보기 성·금품 나눔 사업입니다. 무르게 반죽하면 무르고 되게 반죽하면 되게 되고, 애를 써서 알맞게 반죽하면 또한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자의 기쁨 받는 자의 감사가 아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내용

【탁석주 의원/제121회 임시회】

희망찬 무자년 새해와 함께 당초에 세웠던 많은 사업과 계획들이 금년에는 모두 완성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개선이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시책들 중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하오니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신항만에서 하역되어지는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된 이 사업은 총연장 0.9km, 폭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말까지 사업비 41억 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금년 초부터는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용지의 매입협의에 대한 예산 미확보와 사천경찰서의 중앙분리대 설치요청, 그리고 향촌신호대 이설사업비 부족 등으로 본도로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성의가 매우 부족한 근성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에 완성되는 사업이므로 부족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본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의 확보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종점 부분인 향촌신호대앞 가각부가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통행 및 주민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각부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반경은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이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강주공아파트~향촌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1.8km 폭3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야심찬 사업으로 완공시 현재 추진중인 향촌농공단지에 유치되어지는 삼호조선소의 물류와 신항만에서 하역되어지는 물류, 그리고 남동화력발전소에 이송되어지는 물류수송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어지며 또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년에 10억씩 예산을 배정해도 20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 배정을 보면 일년에 겨우 3억원씩 2년에 총6억원의 사업비 밖에 배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2014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며, 본사업의 지연으로 금년도 착공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삼호조선소의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역의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저해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의 160m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약50m지점에 풋살경기장이 2006년12월22일 사용승인을 얻고 영업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진행시 풋살경기장을 수용해야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풋살경기장이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더니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의 규모는 대지면적 4,825m2 가로(20m)×세로(40m)의 경기장이 3면이 설치되어있으며 건축물은 연면적 96m2의 경량철골구조로된 사무실 겸 탈의실과 2,329m2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총건축비가 약2억5천만원정도 소요 되었으며 건축이 이루어진 경과를 보면 건축신고일자가 2006년11월21일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6년12월22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간선도로로 계획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대로2-1호선)의 도로선형 조정이 필요하여 경남도에 2007년 4월 노선변경 계획을 보고한바 있으며, 2007년6월15일 경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신청에 따른 재검토를 지시받고 6월20일 재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 12월27일 사천시 벌리동 및 용강동 일원의 기존의 공설운동장 확장을 위한 사천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운동장확장 고시에 따라 도로노선 변경이 있으면 2006년 12월 22일 준공 된 풋살경기장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사천시 도시과에서는 대로2-1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여 시설부지 전형화권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도로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12월22일 풋살경기장이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불과 100일 후인 2007년4월에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경남도에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른지만 100일전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그 시설들에 대하여 토지보상은 물론 지장물 보상 등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철거후에 사업을 진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물론 관심있는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풋살경기장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및 동법제10조제1항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적어도 사업주에게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으로 차후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사업의 보류를 요청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함으로써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남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남천은 우리시 동지역에 위치한 삼천포천과 고성을 경계한 봉현천과 함께 3대 하천으로서 동부지역 농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방2급 하천입니다.

봉남천의 일반현황을 보면 하천의 총길이는4.29km 이며 와룡산기슭의 배고개마을에서 향촌동 신항만 인근의 마을까지 이어지며 신항만으로부터 오산선 밑부분까지의 약 3.7km는 하상이 높고 하천의 폭도 약7m로 정비를 하였으나, 오산선에서 당산마을까지 700m는 하상이 낮고 하폭도 4m미만으로 정비되지 않아 재해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소화해야하는 면적의 규모면에서 보면 삼천포천이나 고성군과의 경계로 있는 봉현천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지금까지의 하천에대한 관심과 정비사업에 투자한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삼천포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수해복구공사비 등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데 비해 봉남천은 같은 기간에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비로만 43억원의 예산밖에 투입되는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봉남천은 수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시에만 중앙정부로부터 수해복구공사비를 확보하여 그때그때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봉남천이 장마나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물조절 가능이 우수하여 재해로부터 안전 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봉남천 상류의 성림수산부근과 모례마을입구, 그리고 신항만주변지역의 하류부분은 봉남천의 범람으로 침수를 당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신항만주변의 7세대는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주가 계획되어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본의원과 향촌동장, 지역의 주민들은 봉남천 정비사업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주관부서에 하천의 정비를 요청하였고 심지어 도의원까지 공약사업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해도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말 경남도 치수과에 2008년 당초예산의 반영여부를 확인했더니, 사천시로부터 사업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면 사천시에 산재한 많은 하천의 정비사업중 사업의 경중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이번의 경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천은 시내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많은 시민의 관심권내에 있다고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봉남천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시민의 관심 밖이라고 소홀히 하는 행정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총연장 4.29km중 하상이 낮고 하폭도 약4m밖에 안되는 미정비구간 약700m 때문에 전체의 봉남천이 범람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일순간 유실되는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바 금년에도 농민들의 근심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뜩이나 한미 FTA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실음이 더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머지 부분 약700m의 정비사업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봉남천이 되어 귀중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전,배고개,당산을 경유해서 상향마을을 통과하던 시내버스가 2005년초부터 운행을 중지하였는데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하던 봉남천 상류의 하천 둑이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노폭이 좁아졌고 특히 상향마을 안길이 협소해서 차량의 통과가 불편하여 운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말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향마을안길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도로를 개설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인근 대형 냉동공장의 고압전기 인입으로 전주도 가설되었고 그 전주로 인하여 마을 중심부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과 하천 둑의 유실로 상향, 당산, 배고개 마을에는 시내버스는 물론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화재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길 없다고 사료되며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유실된 봉남천의 노폭도 봉남천 정비사업과 함께 확장하여 시내버스와 대형차량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남천 하류의 상습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2012까지 이주 예정인 신항지구 가옥 7개동의 이주를 좀더 빨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지구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이주를 결정한 지구지만 집중호우나 태풍시 만조와 맞물리면 그야말로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가 어려운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내용

【최갑현 의원/제121회 임시회】

우리시는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서부경남의 어느 자치단체 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임을 인근 타 시·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도시로의 발전은 그 지역의 경제력. 문화 수준. 성장 잠재력. 복지시설 등이 향상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기업체를 사천 지방 산업단지 등에 유치하여 읍·면 지역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삼호조선이 향촌동에 들어서면 동 지역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보다 문화 생활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생활속의 공연문화 정착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개최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 매김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시의 발전된 모습과는 동떨어지고 낙후되어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의 현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삽재마을은 75세대에 14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6년과 2007년 2개년 사이에 2억9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삽재마을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예산지원보다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삽재마을 바로 인근에는 수산물가공단지가 조성될 계획도 있는바 우리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문제와 더불어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라 생각되는데 시행정을 책임지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려한 경관의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우리시의 인상 중 외지인들이 도시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는 장소 중 노산공원이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2002년중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으로 노산공원이 82.3%라고 조사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노산공원에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박재삼 시인 문학관 설치와 공원 철탑 이전 및 노산공원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새로이 개발하는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산공원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노산공원에는 1973년 3월 30일에 삼천포 시민협회에서 설치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우리 민족의 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국난극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한 분으로 지금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존경하며 추앙하는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무공 동상이 공원 한 가운데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또한,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관리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충무공 동상을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새로운 곳에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삼천포 앞 바다를 바라보는 향촌동 진널 공원 내에 충무공 동상을 세워 민족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도 되고 공원 주변에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삼천포 앞바다를 구경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면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사업제휴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지방 자치단체들이 민간 기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의 단계를 지나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이행 당사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와 행정법규를 염두에 둔 중요한 행위로서 상호 신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역 개발사업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며 계약규모나 내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많은 영향과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오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해각서의 체결은 그 대상기업의 건전성과 재정규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결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가 MOU를 체결한 건수 및 체결내용과 현시점에서의 사업진행결과 및 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면 부족으로 답변 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알림방

정관·난관 복원시술 안내

자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영구불임시술 가정에 정관, 난관을 무료로 복원 시술을 한다.

◆ 대상 : 남자 50세, 여자44세 미만
◆ 시술의료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가족보건의원
◆ 입원일수 : 정관(1박2일), 난관(4박5일)
◆ 시술안내
보건소에 복원시술 신청 → 정밀종합검진 및 수술일정 예약 → 예약일에 수술 실시
◆ 시술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831-3579

feel 경남사랑 2008 향토식품 경연대회

남해안 시대 경남향토음식과 함께!

지역특산물과 다양한 향토음식의 연계로 지역특산물 소비기반마련 및 지역별 특화된 음식개발로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 음식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하고자 2008 향토식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경남지역 음식문화 바로알기를 통한 지역사랑을 고취하고 다양한 식이요법의 개발 보급으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여 건강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 : 2008. 5. 9(금) ~ 10일(토) (10:00~22:00)
◆ 장소 : 창원실내체육관 & 만남의 광장 일원
◆ 주최 : 경상남도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회중앙회 경상남도지회
◆ 후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협찬 :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경상남도지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feel! 경남사랑 2008 향토식품경연대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ag.or.kr) 참고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4월 23일 시청청사와 사천공항 광장에서

사천시는 4월 23일(수) 시 산하 전 공무원 및 각 기관, 단체의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청사와 사천공항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및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실시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은 현재, 인구 노령화 및 각종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증가 등 혈액사용량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건강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는 줄어 수혈을 필요로 하는 병상의 많은 환자들을 위해 건강한 시민들과 일반직장인들의 사랑의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혈액원 이동 채혈반을 지원받아 헌혈가능 조건을 갖춘 희망자를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여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혈액원에 전량을 기증한다.

‘사랑의 헌혈’ 참여자에 대하여는 간기능 검사, 매독, AIDS , B?C형 간염 검사와 정확한 혈액형 및 혈압측정등 건강검진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헌혈 증서를 교부한다.

헌혈 당일 헌혈차량에 내에 설치된 ‘헌혈증서 나눔방’ 창구를 통해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우리주변의 백혈병, 혈우병 등 다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관계자는 이웃사랑과 사회봉사의 참 실천 운동으로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에 뜻있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 사랑의 헌혈 안내 : 사천시보건소 의약담당(831-3574)

복지알림방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사전치 장애인종합복지관.

■ 일 시 : 2008. 4. 17(목) 11:00~16:00
■ 장 소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장
■ 참석대상 : 1,000명(장애인 및 보호자)
■ 행사내용
- 1부 :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 및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부 : 체육행사 등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해빙기(봄철) 방역소독 실시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해빙기(봄철)을 맞이해 3월10일부터 5월 초순 까지 도심지 하수구, 건물지하실, 아파트 정화조, 쓰레기장 등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아파트 등 정화조 유충이 서식지에 유충 성장억제제의 방역약품으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번식 및 개체수 존속 유지에 가장 적합하고 영양물질이 풍부한 소형 아파트 정화조에서 모기유충이 연중 대량으로 번식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1차적으로 유충 서식지에 재확인 방제소독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도심지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인부 3명과 초미립자 살포기 장비를 가지고 도심지 하수구 위생 해충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모기 개체수를 절대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봄철 방역 불편사항이나 주택주위 정화조 및 오수에 모기등 발생이 의심스러울 때에 시민 신고 접수 (방역담당자 일반 : 831-3620. HP:011-9392-5069)를 활성화하여 방역기동반을 현지에 출동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 i 다누리 카드’ 발급 안내 참여 가맹업체 모집 중

세계 최저수준으로 접어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경남 i 다누리 카드’를 발급한다.

♠ 지원 대상 : 경상남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996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
♠ 지원 내용 : 경상남도 내 가맹기업체 (기관)·카드사 협약내용의 약정에 의한 할인·우대 제공
♠ 업종별 지원내역 : 홈 페이지 참고 http://idanury.bccard.com
♠ 신용카드사 : 농협 BC카드 (농협 전 지점에서 카드 발급)
♠ 사천시 참여 가맹업체 모집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업종 : ‘경남 i 다누리 카드’소지자에게 약정된 할인 혜택을 지원할 교육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제조 및 유통업체, 공공문화시설, 학원 및 서비스업체 등

○ 가맹업체 인센티브
· 카드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 참여업체 인증마크 부착
※ 카드 소지자에게 무이자 2~3개월 할부로 가맹점 매출 증가 예상
♠ 상담 및 문의 : 사천시 보건소 ☎ 831-3579, 831-3518

식중독 예방 관리 수칙

올바른 급식환경

급식소에서 새로이 급식을 재개할 때는 반드시 급식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를 사용전에 충분히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 담가 2차 세척하여 사용(칼, 도마, 행주 등은 85℃이상에서 1분 이상의 가열 소독)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 먹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도록 합니다.

지하에 설치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높으므로 급식시설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지상에 설치합니다.

식품원재료의 철저한 관리

유통기한 및 신선도가 확인된 식품원재료를 사용합니다.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구입 즉시 보관합니다.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적인 조리과정

재료는 세척을 철저히 하고 조리도구는 소독을 자주합니다.

가급적 생식을 삼가고, 가열된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냉동식품이나 식육 조리시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조리된 음식은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

☞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이상 되도록 조리

깨끗한 개인 위생관리

설사유증상자 및 보균자는 조리 및 급식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식사 전, 배식 전,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2008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2005년부터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사천시는 2008. 1. 1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22,126호)의 지목, 면적, 지형지세 등 11개 토지항목과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9개 건물항목에 대한 특성들을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비준표상에서 이용가치가 유사한 비교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한 후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여 2008. 3. 7 ~ 3. 28(21일간) 가격열람 실시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4. 30 공시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사천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이 공시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천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며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향후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용	일정
(1)이의신청 (31일간)	2008. 4. 30 ~ 5. 30
(2)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2008. 5. 31 ~ 6. 29
(3)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2008. 6. 30

※자세한 사항:사천시청 세무과(055-831-2883, 2875) 문의

2008년도 재산세 이렇습니다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납세의무자**:2008. 6. 1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주택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9. 16 ~ 9. 30(나머지 1/2)
○건축물:7. 16 ~ 7. 31
○토지:9. 16 ~ 9. 30
○항공기, 선박:7. 16 ~ 7. 31
▶**2008년도 달라지는 사항**: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 5만원미만 7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주택과 그 부속토지
○과세표준:개별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5
※2007년까지 50%,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도 100% 적용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과세표준:공시지가의 65%(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도 100% 적용)
▶**세율**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주택	4천만원 이하	1.5/1,000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액의 3/1,000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사치성재산	40/1,000
		농지(개인소유)	0.7/1,000
		기타 토지	2/1,000
건축물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0/1,000
		그 외 건축물	2.5/1,0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1.신고기간:2008. 4. 1 ~ 2008. 6. 30 (3개월간, 공휴일 제외)
2.신고 대상 및 자격
□신고대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총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신고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구비서류 제출방법
□신고서식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신고서 제출방법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신고서 접수처
□사천시청 5층 일제강점하사무실 055)831-2531~2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6.신고사항의 처리절차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위안부관련 피해신고는 제출받은 기관에서 접수한 후 피해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복사해서 원본(사본은 당해기관 보관)은 위원회로 송부하여 직접 위원회에서 처리함
※1·2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3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기타사항
○금번 피해신청 접수는『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이번 피해신고 기간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8.문의처
○사천시청 총무과 (☎ 055-831-2566), 5층 일제강점하사무실(☎ 055-831-2531~2)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055-211-387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2-2180-2617, 2618, 2621, 263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업인개발과제 공모

1. 목 적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단체)이 직접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2. 지원대상 분야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개발과제
-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과제분류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농기계, 가공, 식량작물, 환경농업 등 연구주제별 분류

3. 농업인 참여방법
●농업인개발과제 연구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됨
- 필요한 경우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산업체, 대학교, 민·관연구소 등 산·학·관·연과 협동연구팀을 구성, 공동연구를 할 수 있음
●농업인의 연구참여 과제수는 사업기간 중 1개 과제에 한함
●연구기간은 1 ~ 3년 이내, 과제 당 사업비 규모는 3천만원 이내로 함

□ **과제신청**
○농업인은 연중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에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접수된 과제를 11월말까지 도 농업기술원에 제출

□ **참여자격**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으로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단체)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과제 당 : 3천만원 이내, 1 ~ 3년 이내
※ 문의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담당 055-831-3820

사천읍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사천읍시민안전봉사대(대장 장정대)대원들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안전저해요소 해소를 위해 사천읍 시장내의 안전캠페인, 홍보계도, 생활주변의 각종위험 취약요소 예방점검 및 불우독거 노인댁의 안전점검 봉사활동으로 읍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날 행사 후 사천읍 구암3리 독거노인댁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집안청소를 실시하고, 전기시설 일체를 교체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앞으로도 사천읍시민안전봉사대는 관내 독거노인댁을 매주 방문해 불편사항과 각종위험요소를 해결하여 읍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면 정동면 자원봉사회 영광마을 독거노인에 밑반찬

정동면 자원봉사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염광마을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회원들은 사랑팀, 으뜸팀, 희망팀, 봉사팀, 행복팀, 진실팀으로 조를 편성해 밑반찬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살피는등 온정을 베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넘치는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써 주위에 훈훈한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다.

정동면 자원봉사회 오승환회장은 "소외받기 쉬운 독거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며,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사남면 화재복구에 진분계 마을 주민 앞장

지난 3월8일(토) 10시경 불의의 주택화재를 당한 진분계마을 김용윤(40세)씨를 돕기 위해 마을주민이 발벗고 나섰다. 화재를 당한 김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서도 지난 2004년 베트남 이주여성과 결혼해 아들까지 낳고 노모를 모시고 부인과 함께 막노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청년이었으나 이날 화재 사고로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하고 전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작은 규모지만 블록 스라브 주택골조는 화재로 인해 그을리고 훼손되었지만 안전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따라 이튿날부터 마을주민 전체가 나서 화재 잔재물 철거와 청소를 시작했으며, 건축물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마을 청년 5명이 복구 전담팀을 구성해 자신들이 보증을 서고 건축자재를 우선 구입해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해 말끔히 단장된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된다.

사남면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 활동 전개

사남면자연보호협의회(회장 윤유덕)는 지난 3월12일(수)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구산 산행과 함께 구룡저수지 주변의 각종 쓰레기, 농약병 수거 등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남녀 회원들은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 오물 수거는 물론 등산로 주변 정비와 함께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매년 봄 사천일반산업단지 주위의 쓰레기 수거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관내 유원지 순찰 활동과 캠페인 전개, 가을철에는 자생조직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면자체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주관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용현면 어려운 계층 돌보미 사업 나서

사천시 용현면(면장:김식일)은 관내 어려운 계층 22세대와 조직단체, 직원과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돌보미 사업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돌보미 사업은 장애와 독거생활로 힘겹게 살아가고 문화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식과 친구가 되어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복지 서비스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14개 조직·단체가 각각1세대와 면사무소 직원 2개조를 편성 8세대와 결연을 맺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고충상담과 말벗이 되어 주고, 밑반찬, 이미용, 청소 및 세탁 등의 봉사와 생활필수품도 지원하는 것으로 3월22일 첫 봉사활동을 일제히 실시했다.

한편,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시청을 주변으로 신도시조성사업이 가속화되고 용현면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가지고 있는 면민들의 부푼 마음이 봉사의 손길로 이어져 돌보미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봉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싹이 튼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축동면 화당산녹수회 정기총회 개최

축동면 화당산 녹수회(회장 강인중)는 지난 3월11일(화) 화당산에서 100여명의 녹수회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화당산 전망대 건립등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 노력하여온 관계공무원과 지역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용산마을 농악팀의 화당산 전망대 둘림 농악 행진에 맞추어 모두 전망대를 둘러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짐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곤양면 8265부대 봄맞이 곤양천 정화활동 나서

8265부대(부대장 이승호) 400여 장병은 지난 13일 새봄을 맞아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하천조성을 위해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곤양천변에서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장병들은 이날 약 4Km 구간에 걸쳐 상류에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폐비닐 등 700포대를 수거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왔던 8265부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는 등 민·관·군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대상을 뿌리 내리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곤양향교·유교사상 고취를 위한 장학사업 시행

지난 3월 초 곤양향교(전교 정도용, 지부장 최낙일)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충효사상고취와 예의생활실천에 모범인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졸업 및 입학식의 자리를 빌려 초등학교 4명과 중학생 3명에게 각 십만원씩, 고등학생 1명에게는 이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향교 내 여성유도회(회장 김미분)에서도 중학생 3명을 추천받아 각 십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곤양향교는 향후에도 동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확대 전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곤명면 '곤명풍물패' 풍물 한마당 열어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 정월을 맞이해 지난 2월 19일 곤명풍물패(회장 김병근)회원 24여명이 곤명면사무소를 찾았다. 이날 오전 이미 시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한바탕 하고 난 회원들은 뒤이어 찾은 면사무소 이곳저곳을 돌면서 곤명면민의 무사안녕을 기원드렸다.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과 어울러져 이루어진 이 날 행사는 곤명면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드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08년도 관광객 맞이 추진계획 설명회 열어

지난 2월29일 곤명면에서는 2008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맞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팸투어 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에 발맞추어 향후 사천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이장, 기관단체장, 자생단체장 등 6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설명회는 관광객 맞이 분위기 조성 및 곤명면민의 화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서포면 환난에 처한 이웃에 '119 희망의 집' 착공식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서포면 거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사고로 일어난 주택화재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고 생계유지가 막막했던 어려운 세대에 '119 희망의 집 짓기 사업' 착공식을 개최해 환난에 처한 이웃에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포면장, 사천 소방서, 삼천포중앙로터리 클럽, 사천소방서 의용?여성소방대,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해 온기를 더했으며, 이웃거주 마을인 다평리 신소마을에서 이장을 주축으로 사랑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5백2십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해 큰 힘을 보탰다.

동서동 주민자치학습센터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개강

동서동주민자치학습센터(학습위원장 정태권)에서는 지난 3월 3일(월요일) 오전 10시 수강생 및 주민자치학습위원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첫 수강을 실시했다

동 주민들은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개강으로 생동감 넘치는 동문화 조성과 주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소를 불어넣고 주민자치 기반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서동위원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동서동위원회(위원장 장찬옥)는 지난 2월29일 제89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가두캠페인 전개 및 태극기게양운동을 솔선수범해 동민 애국심 고취와 주민홍보에 기여했다.

이날 태극기게양 가두 캠페인은 가가호호 방문해 시민태극기 게양운동 홍보와 직접 태극기를 게양해주는 등 국경일 태극기 달기에 전동민들의 참여의식과 함께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태극기게양운동 캠페인 후에는 도로 및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국경일 환경조성에 일조했다

선구동 선구동 환경정비로 봄맞이 한창

선구동주민센터(동장 김길수)는 해빙기인 3월 한 달을 봄맞이 환경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선구동 12개 조직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했다.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조직단체는 단체별로 주1회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 하천이나 농경지, 도로변, 도심공원 등에 대한 청소와 폐비닐 수거 활동과 함께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파트 부녀회를 비롯한 마을별 부녀회에서는 생활주변 청소와 화단조성 등 봄맞이 단장에 자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선구동 전조직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새봄맞이 환경정비 행사를 가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좌룡동과 동림동, 한내천의 농경지 주변 등에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비롯한 쓰레기를 5톤 정도 수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선구동 등산학교 무박 2일 눈꽃 특별산행 해

선구동등산학교 무박2일 눈꽃 특별산행 가져

선구동 등산학교(대표 : 이대수)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치악산 산행을 가졌다.

이번 산행은 선구동 등산학교 회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3일(토) 밤 10시에 선구동주민센터를 출발해 다음날 새벽 4시에 치악산 구룡탐방 지원센터에 도착, 이른 조식을 마친 후 구룡사, 대곡야영장을 거쳐 정상인 비로봉(해발 1,288m)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산행에 참여한 회원들은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정상 부근의 설경과 눈꽃으로 겨울철 산행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벌써 다음달 산행이 기다려진다며 그 소감을 밝혔다.

※ 3월 산행은 30일(일) 전북제천 월악산

동서금동 자연보호 동서금동협의회 새봄맞이 대청소

지난 3.24일 자연보호동서금동협의회(회장 강달원)는 회원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팔포매립지 주변 및 노산공원 해안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예년에 비해 4~5° 정도 높은 기온으로 빨리 찾아든 봄기운 탓인지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원 및 바닷가 주변을 중심으로 대청소를 실시했다.

회원들이 수거한 쓰레기 중 빈병이나 빈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분리수거하여 처리했으며, 각종 해안쓰레기와 폐 어구 및 어망 등은 행정차량을 이용해 말끔하게 정비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벌용동 벌용동 태극기 달기 운동에 앞장서

벌용동주민센터(동장 강호천)에서는 지난 삼일절을 맞아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알리는 태극기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갔다.

동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공로타리에서 3호광장을 태극기달기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삼일절에는 벌리주공아파트를 지정해 당해 아파트에 국기달기 안내문을 배부하고 삼일절 전일과 당일에 국기게양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했으며, 또한 관리사무소 두 곳에 태극기를 비치해 국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국기판매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파트 전체 대부분의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을 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나라사랑실천에도 앞장서는 아파트로 부각되어 인접한 이웃아파트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벌용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 영정사진 보급

벌용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박성주)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 보급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직까지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당초 만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제작시일과 비용이 많이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고연령자 125명에게 우선적으로 영정사진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들은 지정된 사진관을 직접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 완료후 영정사진을 수령하면 된다.

앞으로도 벌용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는 어르신들의 호응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영정사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향촌동 새봄맞이 취약지역 꽃길 단장

새봄을 맞아 진널 전망대주변으로 방치되어 있던 공한지를 봄의 전령사인 팬지로 꽃길을 단장했다.

이 곳은 외래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각종 쓰레기 투기와 잡초의 무성으로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던 곳이었다. 새봄을 맞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꽃묘를 식재해 꽃길로 단장해 놓았다. 앞으로는 향촌동 조직단체가 다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해 계절별, 테마별 꽃길 산책로로 가꾸어 주민들의 휴식과 웰빙 건강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남양동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 통해 새 각오 다져

남양동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정진균)는 지난 3월 13일 남양동주민센터에서 대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대원들로 재정비된 봉사대는 이 날 발대식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봉사대는 오는 4월 중순경 와룡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등산객 안전사고 유의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와룡산 진입로 환경정화활동으로 봄철 등산객 맞이 준비 끝

남양동 새마을회(협의회장 유진수, 부녀회장 이정자)는 봄철 와룡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와룡산 진입로 구간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날 정화활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3톤, 재활용 5톤을 수거해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하고 재활용은 추후 매각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양동 새마을회는 연중으로 환경가꾸기, 어려운이웃돕기, 사랑의집고쳐주기 등 많은 지역봉사를 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참다운 봉사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어!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전기료가 확 줄었어요!

초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시기에 사천시는 자연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밤에는 계량기가 다른 집과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다가 동이 트는 새벽부터 해가지는 저녁까지는 거꾸로 돌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로 2004년부터 보급된 태양광 발전기를 전년도에 주택 15동과 마을회관 4동에 공급해 주택 15동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측의 모니터링 하고 태양광 주택 보급이 시작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2006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2006년 8월 전기요금이 431만2,169원이던 것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2007년 8월달에는 210만86원으로 절반이상이 절약되어 총 212만83원의 이익을 보았다.

태양광 발전기의 원리는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으로 보내면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낮에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저장 해 두었다가 밤에 사용하는 원리로 신벽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2007년 무더위가 가장 심했던 8월 한 달 80㎡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24시간 가동시킨 결과 전기요금이 4만1,000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태양열 난방 시스템은 난방만 가능 했으나 태양광 발전기는 냉·난방기능을 모두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조량이 적은 지역 또는 밤에는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의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2천1백만원에서 60%보조를 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과 병행하여 사천시와 경상남도에서 1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면 해결되는 사업을 금년도에 5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26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가정에 3kW전력을 공급하고 월평균 300kW를 생산하고 나머지만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월 500kw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11만5,55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1만5,60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게 되어 총 9만9,95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지역적 여건과 계절별 일조량 차이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주택이 남향이면서 경사지붕일 경우가 가장 적합한 주택이면서 반드시 건물분 등기가 되어있어야 보조금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신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첨단항공우주과학관 부지내 신생에너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내년도 55억6천만원의 사업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 중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천시가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 주택은 밤엔 일반주택과 같이 전력이 소모되지만 동이 트면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봉남동에 위치한 김종윤 씨의 태양광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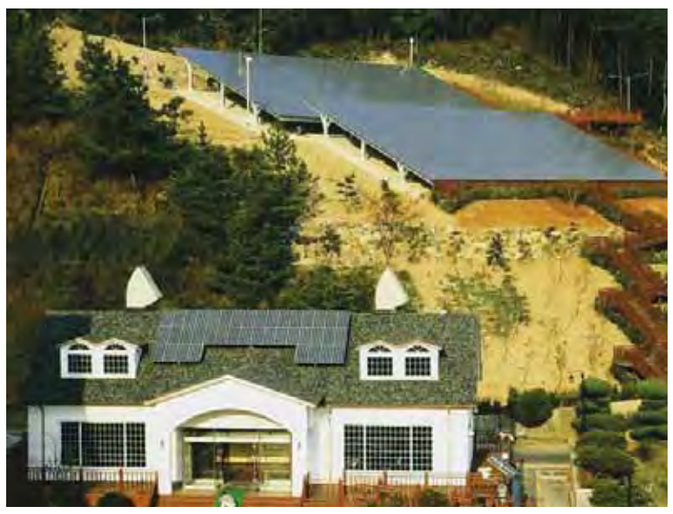
사천시 물가 잡기 총력

하수도사용요금 인상 유보

사천시는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원자재가격의 불안 등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현상에 의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다.

시는 우선 물가 파급효과가 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억제키로 하고 4월부터 19.4% 인상하기로 한 가정용 하수도사용 요금을 유보키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업소 50개소를 선정해 1개업소당 6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물가모니터요원과 YWCA 등 민간주도의 물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명의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을 임명해 매주 단위로 생필품 가격과 서비스 품목 요금, 75개업소의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을 조사해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가격안정업소 현황을 게시해 지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물가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물가 안정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물가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을 방문한 김수영 시장이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태양광발전소 전경.

전국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

서포에 230억 투입, 올해10월 준공

사천시 서포에 전국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된다.

2006년 3월 롯데기공과 협약 체결한 서포면 구평리 산29-1번지 일대 9만㎡규모에 3㎿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지장물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서포면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지난 2007년 7월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조건부 사용허가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과 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28일 (주)롯데기공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30억원이 투입되고 올 6월 착공해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조성지내 유일한 지장물인 묘지 118기중 무연고 11기에 대해 2008년 3월24일 묘지개장허가를 득하였고 유연묘 107기는 연고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상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일정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원리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태양전지라는 광전 변환기를 사용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종합시스템으로 국제에너지시장이 초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 협약으로 에너지 불안정세가 가시화 되고 있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가피하여 시에서 선두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또한 항공우주박물관과 인근에 건립될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에너지관이 조성되면 신생에너지 발전 원리를 학습하고 대방조류발전소와 삼천포화력본부 소수력발전소, 유니슨의 풍력발전 공장 및 서포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체험 관광 테마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봄철 산불예방에 다 함께 참여 합시다

사천시는 봄철 산불예방강조기간을 맞이해 영농준비와 행락철 입산자 등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재난성 대형 산불로 확대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없는 푸른 사천가꾸기 운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휴일 없이 가동하고 감시원(102명)과 전문진화대원(20명)을 산불취약지와 문화재, 사찰 등에 순찰토록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 입구에 배치해 등산객과 입산자에게 산불조심 홍보 및 계도토록 했다.

또한 도서지역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위해 어선을 활용 산불예방 홍보 와 섬지역 주민과 어촌계에서도 산불예방활동에 자율적 참여를 당부하고 해양경찰서에도 산불예방계도 및 진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과 연접한 마을(112개)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화기물 취급주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와 과수원내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후 늦게 또는 야간시간을 이용 소각행위가 우려돼 야간단속반을 편성 중점 단속키로 하고 산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와 초기 진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마을 앰프방송 및 차량가두 방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전 시민이 다함께 산불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

첫째 : 산연접지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과수원 등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금지

둘째 : 등산을 할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화기물 휴대하여 입산 금지

셋째 : 성묘객과 무속인 등은 산림내에서 향불·촛불·예단 태우는 행위금지

넷째 : 산불을 발견할 시는 시청 녹지공원과(☎831-3425)나 읍면사무소 또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시고 산불 진화에 참여 합시다.

행정동우회가 '산불 없는 푸른 사천 가꾸기'에 나섰다.

시정 밖 소식

사천에서 울러 퍼진 그 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사천초교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축구대회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배철한)는 지난 3월 21일(금) 사천초등학교에서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동문과 시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가졌다.

8회째 맞이한 이 행사는 식전 행사로 사천초등학교 풍물패의 풍물놀이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본행사인 축구대회에서 10여분간 공방을 벌이다 선취골과 함께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고,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가지로 진출해 사천읍시장과 사천농협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다.

한편 행사관계자는 89년전의 일제하인 1919년 3월21일 사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날 졸업식후 행사인 축구시합을 계기로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일제히 끄집어내어 높이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려 재현하는 행사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민족정기의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읍민들에게도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고 밝혔다.

사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인터넷 법질서를 훼손하는

사이버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단속기간** : 2008. 3. 1~4. 30 (2개월간)

○ **단속대상** △ 웹서버, DB 등 대상, 해킹·바이러스·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 대리운전, 대출알선 광고 등 불법 스팸 발송 행위 △ 온라인 도박 개장 및 도박 행위, 불법 환전, 알선·재매입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누설·판매행위 △ 온라인 물품·게임 아이템 판매 빙자 등 인터넷 사기 행위

○ **신고접수** : 각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중요첩보 제공시 신고보상금 지급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제 12회 사남면민 체육대회 개최

첨단항공산업도시의 거점지역 면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1만여 면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한 마당 축제의 장으로 '제12회 사남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08. 4. 27(일) 09:30~17:00

○ 장소 : 삼성초등학교 교정 (우천시 강당)

○ 참가대상 : 사남면민 및 출향인사

○ 주관 및 후원 : 사남면체육회/사남면

○ 행사내용 : 입장식. 개회식. 종목별체육대회. 시상식

(육상·축구·배구·씨름·건강달리기·윷놀이·게이트볼·노인 공굴리기·노래자랑)

○ 문의사항 : 사남면체육회 ☎ 831-5081, 5084. 자세한 사항 : 사남면 홈페이지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관련

정부업무대행 사칭 거액 보상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을 타게 해 준다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

○ 거리에서 주로 노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행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

◇ 예상되는 피해

○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2008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대행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따라서 접수료를 착복하거나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요령 및 조치

○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유료 접수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본격 추진

사천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 의욕 고취를 통한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2번지(사남농공단지 입구)에 총사업비 50억원(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만1,283㎡의 시 부지에 건축연면적 3,306㎡의 지상 3층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물 설계는 비상하는 사천의 발전상과 미래지향적이고 진일보한 사천을 상징하고 예술성과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지난 2월 18일 실시한 결과 전국의 9개 건축설계사무소가 응모해 지난달 11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 6월 설계당선작으로 설계를 시작으로 10월에 착공, 200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향촌농공단지 보상 33%

'삼호조선' 순항

지난해 10월31일 지정·고시된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일원의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보상이 현재 63억원 가량 협의 완료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3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 4월말 까지는 대부분의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가 삼호조선(주)와 토지 보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보상에 나서 최대 걸림돌이 된 기존 수리조선업체와 수산가공 공장 등의 보상도 무리없이 협의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교통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애초 계획인 2009년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소가 가동될 것으로 본다.

조선소가 본격 가동되면 약 3,5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향촌동 뿐 아니라 침체된 동(洞)지역 전체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소년 또록이의 항공 이야기-52〉

항공기 무게 중심

(CG : Center of Gravity)

항공기 탑승 시 좌석들이 비어 있더라도 가능한 한 항공사로부터 배정 받은 좌석에서 그대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공사에서는 탑승권 발권 시 승객과 화물의 무게에 의한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제시한 순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만약에 항공기 탑승 후 좌석을 임의로 옮겨 앉으면, 심한 경우에는 항공기 무게 중심이 균형을 잃어 다시 무게 중심을 잡느라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륙 후 무게 중심의 범위를 벗어나 생길수도 있는 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항공기나 선박은 자동차나 철도 같은 육상교통 수단과는 달리 기체 또는 선체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서는 항공기 전체의 무게 균형을 배려한 항공사측의 좌석 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만 한다.

항공기는 최종적으로 승객과 화물 수속이 완료된 시점에서 컴퓨터를 통해 좌석 배치와 화물 탑재 위치 등이 자동으로 고려된 항공기 총중량과 그 중량에 대한 무게 중심을 확인한 후에 이륙하게 된다. 항공기의 전체 무게는 항공기 기체의 무게 외에 승객, 승무원, 화물, 수하물, 연료, 기내식 및 기내용품 등이 모두 합쳐진 수치이다. 이때 산출된 항공기의 무게가 원래 비행계획 시에 산출된 중량과 실제 중량 그리고 항공기 무게의 중심이 운항에 적절한 제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항공기는 운항 허가를 받게 된다. 만일 계획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크다면 화물을 내리던지 연료를 더 보급해야 하며, 무게 중심 범위도 제한치 이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을 재배치해야만 한다.

항공기 무게 중심은 항공기 동체 상의 일정한 기준선으로부터 각각의 거리 및 그 위치에 작용하는 힘의 합계를 통해 구해지며, 이때 구해진 항공기 전체의 무게 중심을 CG(Center of Gravity)라고 한다. 항공기 무게 중심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사람, 화물, 장착물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동 되는데,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게 중심의 허용 변화를 CG 범위라 하고, 항공기의 CG는 이륙, 비행, 착륙 중에도 항상 이 CG 범위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항공기가 무게 중심 범위 내에서 비행 한다는 것은 항공기 앞뒤의 균형이 잘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항공기는 최대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항력을 적게 받는 비행 자세를 유지하면서 안전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자세에서는 항공기의 모든 기기들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연료도 가장 적게 드는 비행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통 항공기는 이륙하게 되면 지상에서보다 매우 좁은 무게 중심 범위 내에서 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범위를 초과하여 비행하게 되면 항공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항공기 이륙 전에 항공기의 적절한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형래·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시 청사는 가마솥

영특한 조물주 와룡산 기슭에
가마부엌 만들고 가마솥 연기를
기다린지 얼만고
지혜로운 사천시민 이제명지 아과차려
가마솥을 얹혔네
거대하고 웅장한 보는이 감탄하는
위엄있는 가마솥

바닷바람 솔솔 불잘드려 반식잘되
100여명 요리사 신이나서 싱글벙글
취사책임 시장은 소리치고 다니네
좋은요리 나오라고 격려하는 소리리라
때가되면 사천은 헬기
곤양삼면 황금용 삼천포는 유람선 타고
함께모여 다정하게 식사하지요

가마솥에 누룽지 뜨끈한숭늉가득
사천시민 여러분 목마른자 목타는자
어서빨리 오세요
가슴속 타는자도 언제든지 오세요
친절하게 떠올립니다
구수한 숭늉을..

/정태수·선구동

한 끼 밥에 대한 생각

생명체가 목숨을 이어나가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함은 자연의 이치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

먹지 않고 살아가는 생물은 신이나 외계인이 아닌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은 목숨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먹을거리이다. 밥은 우리나라 사람을 특징짓는 전통이요 문화요 삶 그 자체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든 다른 일을 하든 적당한 땀을 흘려야 한다. 일을 않고 밥을 먹겠다는 심보는 용서하기 어렵다.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빌어먹을 놈'이라고 비난하듯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현재를 살면서 밥을 먹기 위해 노동을 하고 미래의 세상에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솝 우화의 베짱이처럼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뉘우치게 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 요즘 고도의 물질문명 시대에 한 끼의 밥을 위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봉사단체 등에서 무료급식 하는 곳에는 점심때가 되면 노숙자 노인 등 한 끼의 따스한 밥을 얻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긴 줄을 지어 장사진을 이룬다.무료급식소에 줄을 선 사람들은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현재의 삶이 고달프거나 젊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게 밥은 그만큼 절실하고 살아갈 힘이 나게 하는 자양분이다. 밥을 평생토록 맛있게 먹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밥을 먹으며 사는 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자녀가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지났다. 스스로 늙어 죽을 때까지 몸을 돌보겠다는 각오를 지녀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 도도하다.

옛날에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먹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밥은 먹을 수 있다. 노력이 부족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도 있다.

한 그릇의 밥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잇기 위한 중요한 먹을거리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맛깔스러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요 존재감을 떨치는 일이기도 하다.

식도락을 느끼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으며 연명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절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박정도·부산시 사하구

긴머리 소녀에게

그때 그 눈빛만으로도 정다움을 느끼고
그때 그 미소만으로도 사랑을 느꼈다

하얀 눈 교정(校庭)에 흩어져 날릴 때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에 두고 서서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얼굴만 서로 붉힌 채 쳐다만 보다가
축복인양 내리는 함박눈은
머리 위에 쌓이고
그토록 아무 말 없이 많은 말들을
침묵 속에 나누다가
또 첫눈 내리는 날 이 곳에서 만나기로
무언(無言)의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소설 속의 연인들처럼 헤어졌다

지금 까지 수십번의 첫눈이 내렸지만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언제 그때의 약속 지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생의 긴 여정(旅程)을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
추억속의 그 때 그 긴머리 소녀야

/배채헌·부산시

-경남사천 축동 과수원농가
-부산문인 협회, 부산시인협회 회원
-가톨릭문인협회, 국제 PEN 클럽회원
-동방목재 하우징랜드, 현대합판목재상사 대표

소화기의 위력

지난번에 아이 둘을 집에 두고 잠시 외출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마음 놓고 외출했다. 볼일을 본 뒤에 마음이 뒤숭숭하여 얼른 집으로 오니 아이들이 컵라면에 쓸 물을 끓이다가 갑자기 가스렌지 불이 옆의 화장지와 종이타월에 붙어 타고 있어서 재빨리 부엌 한 쪽 귀퉁이에 설치한 소화기를 끄집어내어 뿜어서 껐다.

마침 휴대용 소화기가 있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하마터면 큰 일이 날 뻔 했다. 소화기를 갖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소화기는 소방공무원 남편을 둔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집에 무슨 소화기가 필요할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막상 화재를 한 번 다스리고 나니 새삼 소화기의 중요성과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

화재 등 재난은 항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런데 우리는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너무도 소홀하다. 설마 하면서 안이하고 나태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 집이나 자동차에 소화기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전기배선이나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는 일에도 무관심하다. 그러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원인을 밝힌다 대책을 세운다 책임자를 문책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기는 수시로 작동여부를 살펴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도 안전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거의가 무관심과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단지 귀찮고 번거로워서 무시해 버리니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다.

요즘은 전기나 가스로 취사를 하여 예전에 나무나 기름을 사용하던 것에 비해 화재가 덜 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화재 등이 덜 나는 건 사실이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경우가 많다. 무슨 일이든지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에 진압하려면 매사에 준비하고 재난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아이들에게는 주의사항을 잘 알리며 수시로 점검하는 버릇을 지녀야 한다. '불내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불조심'이라는 표어처럼 매사를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갈 일이다. 늘 대비하고 점검하면 걱정이 없고 설혹 부주의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얼른 대처할 수 있으므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 불필요한 재난으로부터 불행과 고통을 겪는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옥출·부산 사하구

그 시절 팝콘 "뻥" 이오!

아파트 입구는 아침 저녁이면 제법 차량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한켠을 공간으로 삼아도 될 만큼 공터가 있어 가끔 뻥튀기 아저씨의 영업구역으로 활용되곤 한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 길목이기도 해 영업지로선 안성맞춤이다.

그곳에 가끔씩 뻥튀기 아저씨가 찾아 오신다. 세월을 덮어쓴 덥수룩한 모습이 영락없이 유년의 장터에서 보았던 추억속의 그 모습이다. 시커먼 뻥튀기 기계와 화로를 맨 앞에 고정하고 망태는 뒤편에 장착한다. 옥수수와 쌀 보리 등 튀밥거리를 담을 깡통도 옹기종이 진열해놓고 조무래기처럼 토막 낸 장작도 한 켠에 수북히 쌓아놓았다. 길 쪽으로는 미리 튀겨놓은 뻥튀기들을 진열대에 차려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입맛과 추억을 유혹하고 있다.

하나둘씩 주부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위엔 쉴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태동하고 있을 뻥튀기의 환생이 사뭇 궁금해져 아궁이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 앉는다 . 고소한 냄새가 솔깃하게 풍겨 나올 즈음 아저씨의 손놀림이 노련해지면서 이윽고 절정의 순간이 다가온다. 짐짓 눈치 채고는 하나둘 줄행랑을 치고 쇠막대기를 끌어당기자마자 뻥 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포말이 하늘을 뒤덮고 움츠린 튀밥들은 어느새 부푼 풍선처럼 망태 속으로 돌격한다. 귀를 막았던 아이들도 고소한 향에 이끌려 모여들고 인심 좋은 아저씨는 한줌씩 나누어 주는데 영화속 웰컴투 동막골의 기상천외한 팝콘풍경이 재현된다.

따끈한 뻥튀기의 고소한 맛에 빨려들고 있자니 스르르 유년의 장터가 스친다. 그때도 뻥튀기는 인기였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터줏대감처럼 나타나 심심했던 우리들의 입가를 늘 촉촉한 맛으로 채워주던 화수분같은 존재였다. 쌀이 귀했던 시절인지라 명절날 먹다남은 떡조각과 옥수수 혹은 보리로 뻥튀기를 만들어 먹었다. 그때 시장바닥엔 하루종일 뻥튀기 터지는 소리가 진동을 했는데 지금처럼 무섭지 않았다. 더구나 천이나 끈으로 엮은 망태가 찢겨지고 깁은 흔적들이 헤어져 뜅겨나온 뻥튀기가 많았다. 두어 번 만 튀겨내도 조무래기들의 손에는 한 움큼씩 먹을 게 생겼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그렇게 화통 같은 소리를 벗 삼아 시커멓게 범벅이된 얼굴로 달콤한 주전부리를 맛보며 커 오는 사이 돌아보니 어느새 그 풍경도 사집첩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요즘도 뻥튀기는 잘 팔리는 메뉴다. 대신 예전같이 장작에 튀겨 내는 게 아니라 기계화된 장비로 대량 생산해 낸다. 가스로 수십 수백대의 기계를 달구어 동시에 엄청난 뻥튀기들이 양산되는데 모양과 색깔도 각양각색이라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달콤한 맛이 한껏 가미되어 아이들도 즐겨먹지만 예전의 그 고소하고도 아련한 감미로움은 사라진듯해 아쉽다.

아저씨는 우리 아파트에만 오는 게 아니다. 이 일대를 순회하신다. 언젠가 그 풍경이 살가워 사진을 좀 찍을거라 했더니 이왕이면 멋있게 담아 달라 주문도 하실 만큼 정겹고 후덕한 분이다.

훌쩍 변해버린 세상, 그 회색아파트 사이로 뻥튀기 장수의 하모니가 울려 펴진다는 것은 추억이요 흥미다. 유년의 추억이 깨어나고 장작불에 굽혀진 뻥튀기가 지친 입맛을 되살려 준다. 어디 입맛뿐이랴. 마음까지 살가워진다. 아내가 튀겨온 뻥튀기를 먹으며 이것저것 일상의 편린들이 속시원히 뻥..소리 내며 풀리길 바래본다.

/이용호·선구동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

原文 : 少年은 易老하고 學難成하니, 一寸光陰이 不可輕이라. 未覺池塘에 春草夢하여 階前梧葉이 已秋聲이라.(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 치의 시간이라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연못가 봄풀이 꿈을 깨기도 전에, 뜰 앞의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 란 뜻이다.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고 했다.

세월이 덧없으나 촌시라도 아껴 공부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학문은 기억력이 왕성한 소년시대에 해야 한다. 사람은 매일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 내가 쉬는 순간은 남에게 뒤떨어지는 순간이며 내가 노력하는 순간은 남에게 앞서가는 순간이아다. 먼저 알아야 한다. 안다는 것은 모르는데 대하여 훨씬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참된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배워 알기를 사랑해야 한다.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 애착심이 가야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배우고 깨우치는 것에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에 있다. 깨치어 가는 진리에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진정 인생에 통달한 사람이다.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두우며,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우니라.(子曰: 學而不思則, 思而不學則殆)고 논어에서 말했다. 맹자가 말하기로 포식(飽食)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히 지내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금수에 가깝다고 했다. 옥(玉)은 닦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道)를 모른다. 상학(上學)은 신으로 듣고 중학(中學)은 마음으로 듣고 하학(下學)은 귀로 듣는다고 했다. 학문은 많이 하되 근본에 전통하는데 있다. 대인의 배움은 도(道)를 위한 것이고 소인의 배움은 이(利)를 배운다고 했다. 배우는 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더라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논문이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의문점을 발견해야 하고 그 의문점을 부단히 생각하고 또 되씹어 보아야 한다.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것으로서 일을 삼아서 다만 속이 텅 비고 엉성한 잔꾀로써 방법을 삼는다거나, 그 올바른 이치를 찾지 않고서 다만 먼저 잘못 얻어들은 말로써 주장을 삼는다면 그것은 성현(聖賢)의 길에 어긋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불치하문(不恥下問)이란 말이 있다. 자기보다 아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고 했다. 학문을 닦는 데는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를 겸손히 외면에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만일 내가 학문적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발판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다.

배우는 일은 공자에게는 끝없는 행복이라고 했다. 옛것을 익히고 배우는데 대한 관심을 늘 인간적인 것과 관계되며, 또 그것은 삶의 질서에 도움이 된다. 배움은 그치지 말고 목숨이 붙어 있는데 까지 배워야 한다.

형설(螢雪)의 공(功)이란 고사(古事)에 동진(東晋)의 차윤(車胤)이라고 하는 가난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등불을 켜놓을 때 쓰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서 여름이면 얇은 비단 주머니 속에 반딧불을 넣어서 공부를 하여 상서랑(고려 육부의 으뜸 벼슬)에 까지 이르렀다. 같은 무렵에 손강이라는 가난한 소년도 겨울이 되면 눈빛으로 공부를 하여 어사대부(御史臺夫)란 높은 벼슬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하지'란, 뜻은 출세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학서여소급류(學書如溯急流)학문을 닦음에 있어 전력을 다하고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명심하자.

/金炯台·사천읍

산소인간

춤추던 무용수가 퇴장한 뒤
다음 연기자가 끌고 나온 건
의외로 헌옷 한 벌에 숨겨진 컵,
분재와 부속물 몇 가지

음향에 맞춰 옷을 입더니
알맞게 도안된 컵을 내놓는데
종자를 뿌리는 내외가 있고
어울려 키우는 가랑비 뒤의 햇살

과일을 이고 가는 상쾌한 주위마다
풍성하여 떨어진 곡식 낱알로
배부른 새떼
곁에서 눈치 보기에 바쁜 들쥐
인간들처럼 종종 싸우는 통에
울긋불긋한 잎은 떨어져
가지마다 하얗게 눈꽃이 피자
지켜보던 관람객들의 함성에

생소한 장면 아니라며
컵을 그들에게 주고 간다

/변근철·용현면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 시대 개막

3월 24일부터 새 보건소에서 업무처리

사천시 보건소가 1995년 이후 13년간 사천읍 지역과 동지역 양 청사에서 추진하여 왔던 것을 3월 24일부터 새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읍지역과 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지역에는 '사천읍보건지소'를, 동지역에는 '동서금동 보건센터'를 설치해 종전과 같이 1차 진료, 예방접종 및 제증명 발급을 수행하여 보건소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이번 신축한 보건소는 2005년도 보건복지 사업으로 확정돼 시청사 부지 내 북쪽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14㎡의 규모로 총 사업비 43억5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1월 착공해 2008년 3월에 완공됐다.

새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만성 질환자 관리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보다 밀접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대시키고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용현보건지소는 정신보건센터로 하반기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층 향상된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터 중심의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 동안 보건소는 양청사로 이원화된 행정 추진 및 의료지원으로 다소의 시민불편이 있었으나 보건소 신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청사 구관 '평생학습의 허브공간'으로 부활

사천시는 사천청사 구관에 대한 활용계획을 '사천시평생학습센터'로 확정해 지난 3월3일 시의회에 보고회를 가졌다

그간 구 사천청사 구관은 영어마을 → 시민도서관으로 검토되었으나 국민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평생학습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 면모를 일신시키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을 확산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천시평생학습센터'로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소요사업비 약 9억5천만원을 4월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5월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착공하면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확정한 사천청사 구관 전경.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으로는 1층 어린이 열람실(독서실), 책 읽어주는 방, 디지털자료실, 복합사무공간을 조성하고 2층은 청소년·일반인 열람실(독서실), 세미나실을 3층에는 강의실, 평생학습실 등을 갖추었다. 또한 청소년,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허브공간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건물전체를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다.

한편 구.사천청사(구관)을 도서관 및 다양한 문화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도서관 부족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사천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진행과 산학협력체결한 대학들의 야간시민대학 개설로 인해 24시간 학습하는 공간으로 일부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청소년 탈선문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천.삼천포 양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여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구.사천청사(구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모든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킴은 물론 학습동아리 활동, 방학기간을 이용한 원어민 영어강좌 개강, 각종세미나 개최 등 시민이 원하면 누구나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활용된다면 사천시 평생학습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뿐 아니라 지역평생학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문화예술학습공간으로써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렁주렁 송이토마토와 함께 농심(農心)함양을

지난해 농촌사랑농촌체험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긴 토마토도 있네~ "

"선생님~ 어떻게 토마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

"너무 예뻐서 못먹겠어요~ "

전년도에 농촌사랑농촌체험교실에 참여했던 꼼나무들의 목소리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천시민들이 자연과 농업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원예체험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토마토, 딸기, 마늘, 배나무, 단감나무, 참다래나무 등 다양한 원예작물 관찰 및 따기, 심기, 먹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그 외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앵초, 깽깽이풀, 할미꽃 등 약300여종의 다양한 야생화 및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 때 인기를 끌었던 관상호박터널 재배로 많은 볼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 4월말에 준공을 마칠 농경유물관(2,270㎡)은 전통 농경문화와 계절별로 농업에 사용한 농경유물의 실물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사랑 농사체험교실은 상시 운영하며 누구나 전화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고 담당자에게 문의 후 참가일정을 정하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맞춤식 '200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사천시는 지난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2시간 동안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09학년도 새 입시제도 변화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460여명의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학입시 설명회는 사천시 인재육성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종로학원이 주최했으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사는 종로학원평가 김용근이사로서 변화된 입시제도 및 주요대학 수시입학 지원전략, 농어촌특별전형 선발 등 사천시의 맞춤식 지원 입시전략에 대한 강의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해 참여자 전원에게 입시관련 자료집을 제공했다.

2009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시관계자는 처음으로 연초에 개최한 이번 입시설명회를 통해 2009학년도의 입시전략의 지침서 역할을 해 수험들의 진로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칼럼

"글자를 넘어 세상으로…"

하태경
삼한노인대학 교학처장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 지방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등과 같은 특징으로 표현된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여 교육 체제도 학교교육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사회로 바뀌고 있다.

21세기는 학습시대, 학습사회로 표현되고 있고, 평생교육이 교육개혁의 지침원리이다. 기업도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조직을 표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체제구축에 힘쓰고 있다.

평생학습의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평생교육이 시대의 대세라고 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교육소외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중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성인 비문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평생교육을 부르짖어도 성인 비문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라면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배움의 필요나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움에 대한 갈망은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거나, 또 다른 비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중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성인비문해자들이 약 400만 명쯤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가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 비문해자들은 경제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렸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과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겪은 세대이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만연되었던 시대에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가난이 원인이었던지, 부모의 무지나 사회가 원인이었던지 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거부당한 채 가정과 자녀들과 사회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음지에서 노력해왔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써야 한다.

최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생기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노인대학은 5년에 개교하여 현재 컴퓨터, 한문 등 13개 과에 26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대학 개교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개 반에 약 260명가량이 등록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다.

평균 연령은 70세 전후다. 최고령자는 93세 되는 할머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이만한 열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처음에 한글교실을 열었을 때 지금처럼 많은 수는 아니었다. 한글을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도 하나같이 우물쭈물 거리면서 자신감이 없었다. 당신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글을 배우고 즐거워하고 있다. 같이 배워야 한다며 동네 친구들을 이끌고 온다. 그들 중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작년에 전국 문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날 글쓰기 대회에서 본 노인대학 학생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그분은 인근 섬에서 사시다가 외손자를 봐주러 따님 집에 와 있으면서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전에는 외손자의 알림장를 읽지 못해 아이 엄마가 올 때까지 숙제도, 준비물도 챙길 수 없었는데 지금은 손자와 동화책을 함께 읽고 지낸다고 한다. 그분의 딸 부부는 학교 교사라고 한다.

자기 자녀들은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정작 자신은 한글조차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현실이었다.

한글교실에서는 수업시간마다 'ㄱ, ㄴ, ㄷ…', 삶의 애환과 기쁨과 감동의 물결이 출렁인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삼천포에서 진주를 버스로 오르내리면서 살았는데 차를 탈 때마다 글을 모르니 부끄러우면서도 '삼천포가는 차요?'하고 운전기사에게 묻고 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인대학 한글교실을 다니고 난 뒤 어느 날 '삼천포, 사천, 진주'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고 한다.

또 어떤 할머니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통장을 들고 가서 직접 해보았는데 은행직원이 돈을 내주더라는 것이다. 너무도 신기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봤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전에는 돈을 찾을 때면 항상 얼마를 내 달라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은행직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지나면서 노인대학 한글 교실 학생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너는 이번에 누구 찍을 거고?' '너는 글도 모르면서 누구를 어떻게 찍노?' '나는 이제 다 알고 찍는다' 이번 총선도 가슴 설레며 기다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쁘기 그지없다.

성인 문해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차원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성인 문해 교육은 비문해자들이 글자를 넘어서 세상 속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하는 길이다.

그들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도 당당하게 누리기도 어려웠다. 한 번도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했다. 평생교육을 말하면서 성인 문해 교육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문해 교육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해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여성 이민자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현하며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문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문해 교육이다.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비문해자들을 향한 시혜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행정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사회는 함께 보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평생학습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다. 국가주도의 개발에서 지역주도 발전의 시대인 것이다. 우리가 또 다른 걸음을 걷기 위해 비문해인이 없는 사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